



우리 선생님들이 달라졌어요

09 아이들을 존중할 때 교실은 행복해진다 (2)

09 아이들을 존중할 때 교실은 행복해진다 (2)

1. 아이들로부터 자신의 권위를 지키려는 김영미 선생님

1) 교실 들여다보기

- 수업에 **집중하지 못하고 떠드는** 아이들
- 벌 받으면서도 **선생님 말을 듣지 않는** 아이



- **의무적**으로 포옹하는 선생님
- 아이에 대한 **미움이 커지는** 선생님

2) 김영미 선생님은?

- ‘**작년보다 엄격한 선생님이 되자**’는 목표를 갖고 매 학기를 시작함
- 아이들이 책임감 있고 바르게 크려면 **엄격한 교사가 필요**하다고 생각함
- 초등학생 아이들에게 다,까,오 말투를 사용하게 하고
아이들을 통제하는 것이 교사로서의 권위를 세우는 것이라 믿고 있음
- 김영미 선생님의 수업에는 아이들의 **자율적 참여가 없음**
 - **선생님의 진두지휘** 아래서만 움직이는 수동적인 수업
 - 조용하고 차분한 수업 진행을 원하므로, **돌발 질문이나 장난스러운 말은 허용되지 않음**

09 아이들을 존중할 때 교실은 행복해진다 (2)

2. 아이들을 가까이에서 만나본 김영미 선생님

1) 2차 미션 전달 및 수행

- 아이들에게 관심과 애정 표현하기
 - 포옹하며 인사하기
 - 수업 시간 뿐 아니라 쉬는 시간에도 아이들과 함께하기

2) 미션 수행 과정에서의 의의

-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노력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는 선생님
- 선생님의 심리를 확인
 - 너무 엄격한 아버지 밑에서 자라 통제 받으며 자라옴
 - 아버지께 사랑 받기 위해서 스스로를 관리하며 끔찍 앓아옴
- 아이들에 대한 애정과 존중이 바탕이 되었을 때 비로소 교사가 갖춰야 하는 진정한 권위 즉, '사랑 받는 권위'가 생길 수 있음

어린 시절의 상처를 해결한 김영미 선생님에게 놀라운 변화가 찾아옴
권위를 내려놓고 아이들에게 자연스럽게 녹아들

09 아이들을 존중할 때 교실은 행복해진다 (2)

3. 김영미 선생님의 Before & After

Before	After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▪ 설명 없이 수업을 진행하는 선생님▪ 원하는 답 이외의 아이들 말을 들어주지 않는 선생님▪ 차가운 말로 아이에게 상처를 주는 선생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▪ 아이의 학업 향상을 위해 어려운 학습을 도와주는 선생님▪ 아이들에게 애정을 보이는 선생님▪ 언제 어디서나 따뜻하고 아이들을 존중하는 선생님